

보고 듣는 방식 달라도 감동은 하나 ‘장벽 없는 오페라’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낮춘 ‘장벽 없는 오페라’가 관객들과 만난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는 운동과 시책) 요소를 별도의 부가서비스로 두지 않고 공연의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데 초점을 두는 무대여서 기대를 모은다.

전문예술단체 음트클래식(대표 장마리아)은 26일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배리어프리 오페라 ‘마술피리’를 오후 3시와 오후 7시30분 두 차례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시각·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관객이 오페라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무대해설, 수어해설, 음성해설 등 접근성 요소를 결합한 무대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나 같은 객석에서 같은 작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대는 오후 3시 전남광주통합특설시 후원으로 마련되는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한’ 갈라콘서트, 오후 7시30분에는 광주문화재단 메세나사업을 통해 ㈜DK가 후원하는 음트클래식 제6회 정기연주회 등 두 차례 펼쳐진다.

음트클래식은 지난해 광주 최초의 배리어프리 오페라 ‘춘향전’을 선보이며 지역 공연예술계에 새로운 시도를 알렸다. 당시 자막과 수어, 음성해설 등 다양한 접근성 요소를 오페라에 접목해 장애인과



전문예술단체 음트클래식은 오는 26일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배리어프리 오페라 ‘마술피리’를 오후 3시와 오후 7시30분 두 차례 선보인다. 사진은 출연진 및 연주자들이 공연을 앞두고 연습하는 모습.

비장애인이 같은 객석에서 작품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선택했다. ‘마술피리’는 왕자 타미노와 파미나가 사랑과 지혜, 용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환상적인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유쾌한 새장이 파파게노를 비롯해 밤의 여왕, 자라스트로 등 개성 강한 인물이 등장해 아름다운 아리아와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갈라콘서트에서는 작품의 주요 아리아와 장면을 중심으로 ‘마술피리’의 음악적 매력을 압축해 선보인다. 클래식과 오페라가 익숙하지 않은 관객도 이야기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하고, 무대해설과 수어해설, 음성해설 등 배리어프리 요소를 더해 시각·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관객이 등장인물의 감정과 이야기, 음악과 무대의 움직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연은 연출 김어진, 지휘 이현민, 음악감독 천현주가 제작진으로 참여하며,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해 모차르트 특유의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음악을 들려준다. 파미나 역 장희정, 타미노 역 고구남, 파파게노 역 김희열, 파파게나 역 박수지, 밤의 여왕 역 김명선, 자라스트로 역 김일동을 비롯해 김수민·윤희정·임지현, 장재연 등 지역에



음트클래식이 지난해 선보인 ‘춘향전’.

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성악가들이 출연한다.

장마리아 대표는 “배리어프리 공연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춘향전’을 통해 시작한 작업이 올해 ‘마술피리’로 이어져 더 많은 시민이 클래식 공연을 편안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는 장애 유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같은 객석에서 음악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연은 전석 초대.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12.080Hz’



‘모서리 없는 것이 모서리로 접힌다’

소리로 바라본 기계와 인간…듣기의 미래는

ACC 사운드 랩 쇼케이스 30일까지 문화창조원

신작 ‘12.080Hz’ 등…워크숍 등 연구 아카이브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성욱)은 오는 30일까지 문화창조원 미디어스튜디오에서 ‘2026 ACC 사운드 랩 쇼케이스’를 선보인다. 이번 ‘ACC 사운드 랩 쇼케이스’는 올해 사운드 랩이 진행한 연구 과정을 비롯해 그 결실로 제작한 신작 2편을 함께 공개하는 자리다. ‘ACC 사운드 랩’은 ACC의 융복합 콘텐츠 연구 개발 사업 중 하나로, 소리를 매체로 한 예술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4년 동안 이어온 ‘듣기의 미래’ 프로젝트는 ‘우리는 어떻게 들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들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듣기 행위 자체를 탐구한다. 해마다 하나의 환경을 정해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는 방식으로, 지난 2023년 ‘도시’, 2024년 ‘장소’, 지난해

‘몸’에 이어 올해는 ‘기계’를 다룬다.

올해 사운드 랩 연구는 듣는 주체를 인간에서 기계로 옮겨 놓았다. 소리를 받아들이고 기록하고 반응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계는 도구를 넘어 우리가 듣고 말하는 환경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운드 랩은 ‘듣는 주체는 누구인가’, ‘기계의 처리와 인간의 듣기는 어떻게 다른가’, ‘기계는 도구인가 아니면 우리의 청취 습관을 바꾸는 환경인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연구의 축으로 삼았다.

5명의 사운드 작가들로 구성된 랩 참여 연구자들(김대희, 김예지, 이강일, 정혜원, 한진협)은 문헌 조사와 워크숍, 국내외 소리채집(필드 레코딩)을 함께 진행하며 한 해 주제를 연구해 왔다. 올해는 기계가 내는 소리와 기계가 소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현장에서 기록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질문을 작품으로 옮겼다.

신작 ‘모서리 없는 것이 모서리로 접힌다’는 기계가 세계를 소리와 영상으로 바꿔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준다. ACC 곳곳에 놓인 다섯 개의 누에고치 모양 설치물이 모은 주변의 모습과 소리를 입체음향실에서 펼쳐 놓는다. 또 다른 신작 ‘12.080Hz’는 마이크로 스피커가 마주 설 때 생기는 피드백을 다룬다. 두 기계가 서로의 소리만 주고받는 사이에 사람이 끼어들면 소리는 끊긴다. 기계의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온 인간이 자꾸로 소음이 되는 순간이다.

아카이브 존에서는 사운드 랩의 지난 기록을 접할 수 있다. 워크숍 현장의 이미지, 필드레코딩을 진행한 연구 현장의 사진, 그동안 발표한 작품 기록, 연도별 연구도록 등 4년여간의 결과물이다. 이외에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평소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ACC 입체음향 스튜디오가 함께 개방된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호남 문학 역사와 성취 조명

이춘배 문학춘추 주간 기획, ‘문향 호남, 그 깊은 뿌리’ 발간

계간 ‘문학춘추’(발행인 노남진, 주간 이춘배)가 7회에 걸쳐 기획 연재한 ‘왜, 문향 호남인가’를 한 권으로 엮은 ‘문향 호남, 그 깊은 뿌리’가 발간됐다.

시인이자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춘배 ‘문학춘추’ 주간은 애향·의향과 함께 오랫동안 ‘문향’(文鄕)으로 불려온 호남이 우리 문학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왜 호남을 ‘문향’이라 부르는지를 문학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왜, 문향 호남인가’를 기획했다.

2024년 봄호부터 시작된 연재는 고려시대를 비롯해 조선 전·후기, 근대문학의 형성과 전환기, 한국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문학의 흐름을 따라 호남 출신 문인들의 활동과 문학적 성취를 폭넓게 조명했다.

특히 호남 출신 문인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문학사의 주요 전환점마다 호남 문인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문헌과 작품을 통해 조망, ‘문향 호남’의 역사적 근거와 문학적 정체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선시대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나타난 호남 문인들의 활약에 관한 기록을 비롯해 전통문학에서 근·현대문학으로 이어지는 호남 문학의 계보와 문인들의 발자취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다. 또 한국전쟁과 산업화·민주화 등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며 호남문학이 보여준 시대정신과 문학적 저력도 함께 살폈다.



이번 단행본은 계간지에 나눠 실렸던 연재물을 체계적으로 정리·보완해 호남문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호남 문학의 뿌리와 전통이 오늘의 문학으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자료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문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문학을 형성해 온 중요한 토양 가운데 하나인 호남문학의 역사와 문학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되짚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춘배 주간은 “호남이 왜 오래전부터 ‘문향’이라 불려왔는지를 막연한 자부심이 아니라 문헌사와 작품, 문인들의 발자취를 통해 확인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책이 호남문학의 뿌리를 되짚는 자료이자 다음 세대에 지역의 소중한 문학적 자산을 전하는 기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남진 이사장은 “지역 문학의 자료를 발굴·기록하고 보존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호남문학이 한국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작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향 호남, 그 깊은 뿌리’는 (사)한림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추진해 온 ‘광주·전남 문단사 정리’의 일곱 번째 시리즈로 발간됐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과학관, 고객만족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유지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지난해 고객만족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10002 인증에 이어 올해 1차 사후심사를 통과하며 인증 자격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ISO 10002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고객 불만 처리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 등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객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불만 처리 절차를 체계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ISO 10002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최초 인증 이후 고객만족경영 매뉴얼과 민원 처리 체계를 기반으로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

다. 특히 국민소통단 ‘사이언스 브릿지(학부모 모니터링단)’와 ‘루체스타(학생 홍보소통단)’를 운영해 관람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신문고와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 중심의 불만 접수 및 처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또한 국립광주과학관은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상설전시관·특수영상관, 특별기획전, 교육 프로그램 등 주요 분야의 고객만족도 목표 점수를 초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통해 고객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는 등 고객만족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스크린에 흐르는 김희갑의 60년 음악인생

영화 ‘바람이 전하는 말’ 상영회 27일 광주극장

수많은 명곡으로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써온 작곡가 김희갑의 음악 인생을 담은 영화가 상영된다.

영화 ‘바람이 전하는 말’이 오는 27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상영되는 것. ‘바람이 전하는 말’은 대중음악 작곡가이자 대한민국 1호 기타리스트로 불리는 김희갑의 삶과 음악을 담은 작품이다. 60년 넘게 한

국 대중음악계에서 활동하며 3000여 곡을 남긴 그의 음악 세계를 스크린을 통해 되짚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화 상영 100분과 관객과의 대화 30분으로 구성된다.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함께 해온 김희갑의 음악과 그 시대의 추억을 관객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